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349호(2025.07.09 ~ 2025.09.30)

이스트스프링 중장기 증권투자신탁[채권]

2025년 06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지방채, 특수채,은행채 등 우량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입 채권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고, 시장 금리 변동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듀레이션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221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02월 28일)

- 클래스C-F : 2014년 02월 28일

벤치마크 매경BP 국채 0~30년 70%+매경BP 특수채 AAA 0~10년 20%+매경BP 은행채 AAA 0~5년 10%

신탁업자 하나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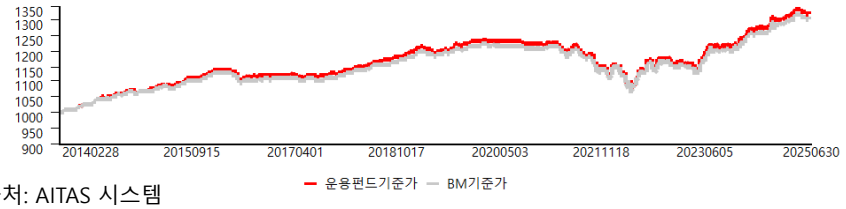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47%	0.02%	2.32%	6.28%	13.77%	17.43%	7.26%	32.09%
클래스C-F	-0.48%	-0.01%	2.26%	6.16%	13.51%	17.03%	6.65%	30.18%
벤치마크	-0.47%	0.07%	2.28%	6.17%	13.36%	16.77%	7.19%	30.41%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6월말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6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국고채권02625-3003(25-3)	5.7	국고01500-4009(20-7)	4.2
기업은행(신)2504이2A-30	4.5	국고00000-4903(19-2)	3.9
인천도시공사251	4.5	국고01875-5103(21-2)	3.8
국고02625-5503(25-2)	4.4	국고채권03000-3412(24-13)	3.2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건설채권747	4.3	국고채권04125-3312(23-11)	3.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C-F : 총 연 0.115%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85%, 신탁 0.01%, 사무관리0.01%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시장은 대선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대가 부각되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금리는 하방이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및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물가 우려를 자극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역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월중 대내외 인하 기대가 모두 약화되며 금리는 하단이 제한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2.0bp 상승한 2.455%,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3.5bp 상승한 2.80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의 마이너스 지속 여부,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타격 정도,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속도 등이 향후 통화완화 기조 및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으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에서 1.4%로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 전망은 4.4%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되었으나, 동결을 전망한 위원 수는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 분화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 총재가 인하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시장의 완화 기대는 다소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유가 변동성과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물가 우려가 남아있는 점은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를 제약하는 변수이지만, 국내는 ① 신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도 경기 반등 모멘텀이 미약하고, ②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는 점차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신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2026년 예산안 편성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경계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완화 기대, 수급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이 혼재된 가운데, 정책 기대가 하단을, 수급 부담이 상단을 제한하는 구조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고 3년 2.30~2.55% 전망, 국고 10년 2.60~2.95% 전망하며,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듀레이션 확대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익률 곡선에서 대내 확장 재정 기조와 대외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커브 스티프닝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정부의 정책 집행이 집중될 7~8월 중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50bp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완화되면, 스프레드는 30~40bp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커브 흐름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 및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스티프닝 또는 플래트닝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30~50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15~5bp 전망하며, 커브 레인지 박스권 매매 대응 계획이나 밴드 이탈 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속 채권형 자금 유입, 레포 펀드 중심 매수세, 기업 이자비용 및 조달 부담 완화 등이 작용하며 강보합 내지 완만한 축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발행시장은 3~5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평균 3.12배,)과 6월(2.75배)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섹터 및 개별업체 간 차별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특수/국고 3y Spread 15~25bp, 은행/국고 3y Spread 20~30bp, 회사AA-/국고 3y Spread 45~55bp 전망, 여전AA-/국고 3y Spread 48~58bp 전망하며, 선별된 종목 위주 BM대비 확대 대응 유지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